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성장한 30~40대 젊은 작가, 이른바 비엔날레 키드들을 글로벌 아티스트로 키우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2012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비빔밥의 '숲, 숲, 숲 그리고 집'(왼쪽)과 서울 포스코 미술관에서 열린 서양화가 강 운의 '물, 공기, 그리고 꿈'전.

비엔날레는 현대미술 교육장... 한국의 피카소를 키우자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12)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10 비엔날레 키드



2012 광주비엔날레의 출품작인 태국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크롬 탁구대'.

지난 10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센터.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 사옥 담배 웅장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빌딩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의 중앙 상공에 눈에 익숙한 대형 회화작품들이 내걸려 시선을 끌었다. 이날 포스코미술관(포스코센터 2층)에서 개막한 '물, 공기, 그리고 꿈' 전시회(10월18~11월14일)의 출품작 가운데 일부였다.

그림의 주인공은 광주출신 서양화가 강운씨(49). 포스코 미술관의 초대장을 받아 약 한달간의 일정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개인전을 여는 행운을 누렸다. 그도 그럴것이 지방작가로서 강남 유일의 대형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공을 들여 설립한 이 미술관은 면적이 168평으로 웅만한 국공립미술관의 전시장과 맞먹는

각박한 일상을 정화시키는 '명상음악'을 떠올린다. 전국적으로 그의 작품을 찾는 컬렉터들이 늘어나면서 한때 '없어서 못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강씨는 돌연 '침거'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 2010년, 오랜만에 화단에 얼굴을 다시 드러낸 그는 전혀 '판사람'이 되어 있었다. 캔버스와 물감대신 화선지를, 붓 대신 가위와 칼을 들었다. '잘 나가는' 화풍을 과감히 접고 예술가로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의 도전은 계속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폐막한 2012 광주비엔날레는 소재와 표현영역에서 한층 자유로워진 그의 작업세계를 보여 주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한열·박상화·장한별·이매리 씨 등과 함께 '비빔밥'팀을 구성해 출품한 '숲, 숲, 숲 그리고

강씨는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국제적인 조류에 밝은)월드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면서 "하지만 광주비엔날레는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세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과 국제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현장'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성장한 '광주비엔날레 키드'(Biennale Kids·이하 비엔날레 키드)인 셈이다.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성장한 지역작가들이 근래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국제미술의 흐름을 접한 이들은 실험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손봉채, 이이남, 진시영 등은 뉴욕 아트페어, 프라하 비엔날레, 세비아 비엔날레, 홍콩아트페어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 얼굴을 알렸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광주작가'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다. 특히 이들 작가들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입지를 확고히 굳히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작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젊은 작가들 세계 흐름 체험하며 영감 얻는 기회 강운·손봉채·진시영 등 키드들 국제무대에서 두각 "기획전 상설화·홍보 병행 국제무대 진출 지원을"

규모다.

전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광주에선 볼 수 없었던 그의 작품들은 마치 '물 만난 듯' 스펙터클한 조형미를 뽐냈다. 자연과의 소통과 개인적인 사유를 합일시킨 평면과 설치 작품은 정중동의 미학을 연출했다.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물 위를 굶다' 연작은 아크릴판 위에 화선지를 올린 후 동양화에 서 일획을 긋는 듯한 독특한 방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순수 에너지를 이끌어냈다. '공기와 꿈'은 캔버스 위에 얇은 한지를 조각조각 오려 붙이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조각으로 가장 광활한 존재를 표현했다. 개막 이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구름작가'로 잘 알려진 강씨는 지역의 대표적인 40대 아티스트이다.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과 구름 등이 만들어 내는 빛의 변주를 화폭에 옮긴 '순수형태' 시리즈는 현대인들의

'집'이 바로 그것.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주제로 6명의 여성 감독이 공동기획한 이번 비엔날레의 의미를 가장 잘 부각시킨 협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비엔날레 전시관 앞에 설치된 22평의 전시공간에 들어서면 3면의 반투명 스크린을 통해 시성(詩性)이 내재된 한글 자음과 모음이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삶'의 담론을 펼쳐보였다. 관람객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었다.

이처럼 강씨가 소재와 영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데에는 광주비엔날레가 있었다. 지난 2000년 광주비엔날레의 '人+人間'에 참여한 그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면서 글로벌 작가로서의 '인목'을 키웠다. 무엇보다 매년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동시대 다국적 작가들의 작업을 경험할 수 있었던 환경은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하나가 지역작가 육성이었다. 9회째 대회를 치른 비엔날레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광주작가들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매년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지역'에 남게 없다는 비난은 광주비엔날레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비엔날레 키드들의 활약상을 보면 비엔날레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비엔날레를 통해 작·간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비엔날레의 값진 '성과'이기 때문이다.

독립큐레이터 윤재갑씨는 "최근 광주의 30~40대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은 비엔날레를 보고 자란 환경이 크다"면서 "더 많은 비엔날레 키드들이 당당한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네트워킹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기획전과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맥주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